■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71-504.
http://doi.org/10.17948/kcs.2019..84.471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1910년대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과 가사문학사적 의의*

고순희(高淳姬)**

목 차

1. 머리말
2. 작품세계의 전개 양상
3. 전개 양상의 의미와 가사문학사적 의의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을 살핀 후, 전개 양상의 의미와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들 가사는 은거 유형(4편), 만주망명 유형(12편), 현실 개탄과 경계 유형(7편), 그리고 역사서술 유형(3편)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가사는 가사가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장르로 기능했다는 점, 당대인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한다는 점, 대부분은 유학적 가치관을 내세워 일제에 저항하는 당대의 전형적인 항일저항논리와 현실인식을 보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II] 교수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D-2016-0830).

**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여준다는 점, 당대인에게 만연해 있었던 사회상도 반영한다는 점,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지역적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 등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들 가사는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하여 창작하는 가사문학의 전통을 극대화하여 발현함으로써 일제강점기가 계속될 때까지 그 전통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 일제강점기가 가사 창작의 쇠퇴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로 기능한다는 점, 가사문학의 창작과 향유에 있어서 지역적 한정성을 더욱 고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등에서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가사, 경술국치, 1910년대, 경북지역, 역사·사회현실.

1. 머리말

가사문학은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한 작품을 꾸준하게 창작해온 전통이 있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한반도는 일제의 강점 야욕이 날로 커져만 가고 급기야 을사늑약의 체결로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되었으며, 결국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고 말았다. 경술국치라는 역사적 사건은 가사문학의 전통적인 창작층인 양반가의 구성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가사문학의 작가들은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수용하는 가사문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경술국치의 충격과 일제강점의 현실을 담은 가사 작품들을 쏟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가사 작품들은 가사의 관습적인 글쓰기의 틀 안에서 창작되었지만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한 의미 있는 작품들이다.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수많은 가사 필사본은 내용, 작가, 창작시기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가사 필사본은 구체적인 작가는 알 수 없다 해도 내용을 면밀하게 읽으면 창작시기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 필사본의 DB화 작업은 창작시기를 범박하게 '일제강점기의 작'이라고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강의 내용만을 파악하고 더 이상의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경술국치, 문화정치기, 황국신민화정치기, 만주사변·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징용·징병기 등과 같이 역사·사회적 현실이 급변한 시기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창작시기를 세밀하게 구

체화하여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동안 매체 게재 가사를 제외하고 가사 필사본이나 가사모음집에 수록된 가사를 읽어 가며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한 가사 작품을 조사해왔다. 그 결과 경술국치 직후인 1910년대에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창작된 가사가 확인된 것만 26편이나 될 정도로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6편의 가사 중에는 이미 소개된 것도 있지만 각 가사가 파편적으로 있어 왔을 뿐이어서 1910년대라는 역사적 산출환경과 연결하여 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26편의 가사 중에는 아직 소개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가사도 많았다. 따라서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문학을 다룸에 있어서 소개된 것과 아직 소개되지 않은 것을 모두 포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는 1910년대에 창작된 26편의 가사 작품들은 일제강점기 가사문학, 혹은 1910년대 가사문학을 논의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시기를 1910년대로 한정한 이유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작품이 창작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시기 가사문학의 양상이 일제강점기 가사문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가사문학은 관습적인 글쓰기로 인해 언뜻 보면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많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일제강점기의 가사문학을 '가사문학의 쇠퇴기'로 보는 것이 가사문학사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단 10년 동안에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해 창작된 가사가 26편이나 된다는 것은 가사문학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을 살핀 후 그 전개 양상의 의미와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1910년대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을 객관적으로 살핀다. 작품 수가 많아 지면의 한계상 모든 작품의 세계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한다. 다만 작품의 출처, 기존 연구, 작가, 창작 시기, 내용 등은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충분히 논의

가 된 작품은 작품세계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다루는 작품은 상대적으로 작품세계를 자세히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여 전개 양상의 의미와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말하는 구수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한 것임을 일러둔다.

2. 작품세계의 전개 양상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1910년대 가사문학의 작품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하여 그 전개 양상은 경술국치의 충격으로 작가가 택한 삶의 방식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1) 고향을 떠나 은거를 택한 '은거', 2) 만주로의 망명을 택한 '만주망명', 그리고 3) 고향 기반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고향 기반'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핀다.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는 작가가 고향에 남아 있는 경우이지만 작품의 창작 계기가 '만주망명'과 관련하므로 만주망명에 합쳐서 논의한다. 한편 3) '고향 기반'의 유형은 다시 작품세계에 따라 '현실개탄과 경계'와 '역사 서술'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핀다.

1) 은거

경술국치 후 나라를 잃고도 이전처럼 세거지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향을 떠나 은거를 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은거를 택한 작가가 1910년대에 창작한 가사로는 〈은사가〉(1912), 〈입산가〉(1911), 〈개세가〉(1910-1919), 〈노경긔라〉(1912)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가사는 〈은사가〉(〈경술국치가〉)인데, 필자가 확인한 이본만 해도 10편이나 된다[1]. 〈은사가〉는 총

1) 확인된 이본은 다음과 같다. ①「庚戌國恥歌」,『역대가사문학전집』제6권, 임기중 편, 동서문화원, 1987, 199-235면. 이 이본은 KRPia(http://www.krpia.co.kr)에 DB화되어 올라와 있는 임기중 저,『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에도 실려 있다. ②「은사가」,『역대가사문학전집』제44권, 임기중 편, 아세아문화사, 1998, 87-100면. 이 이본은 조동일의『국문학연구자료 I 』, 박이정, 1999, 532-542면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③「隱士歌」. 임헌도,「은사가(隱士歌) 관견(管見)」,『논문집』제18집, 공주사범대, 1980, 5-18면. KRPia의『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에 실려 있는 이본이다. ④-⑥「은사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

195구(이본① 기준)이며, 작가는 서울에 세거하던 명문대가의 일원인 '리참봉'으로 작품을 지을 당시 나이는 70세였다. 내용이나 말미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은사가〉의 창작시기는 1912년경으로 추정된다[2].

〈은사가〉는 경술국치 후 작가가 수십 인의 가족을 이끌고 서울을 떠나 '태백산 만경대 금선동'으로 이주하여 생활한 것을 서술했다. 전반부는 조선의 건국과 제도문물의 정비, 자신의 가문, 경술국치, 피난 결심, 이주 준비와 행색, 친구와의 작별과 서울 출발, 노정의 어려움, 금선동 도착 등을 서술했다.

> 천운이 불행하여 경술년 추칠월에 / 난대없난 서북풍이 한양서울 불어든다 / 놀라울사 놀라울사 천리호풍 놀라울사 / 백만장안 우리백성 물끓듯 하난고야 / 아까울사 리화일지 준색이 처량하다 / 통곡성중 둘러보니 풍진이 자옥하다 / 삼십육계 좋은꾀가 주위상책 아닐런가 / 가자서라 가자서라 피란길로 가자서라 / 불고젼후 가난사람 그무었을 애낄소냐 / 사모관대 다뜨더서 불에여허 다태우고 / 은영총탕 다뜨더서 한강물에 다던지고 / 가장지물 다버리고 구명도생 가난사람 / 이것저것 생각하랴 가쳡적어 품에품고 / 자식손자 앞세우고 세데삿갓 수껴쓰고 / 죽장망혜 신들메고 불원쳔리 가자셔라 / 망문투지 가자셔라 피란길로 가자하니 / 남부여대 업고지고 동조정에 노든친구 / 손잡고 이른말이 새세상이 되거덜랑 / 다시보자 작별하고[3]

위는 전반부의 한 대목이다. 경술년 7월에 '난데없는 서북풍'과 '千里胡風'이 불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분노와 동요가 물이 끓듯 하고 성중은 통곡소

A&SubID=01&VerseID=V00003743(2019.06.27 검색). ⑦「은삭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2&VerseID=V00003149(2019.06.27 검색). ⑧「은사가(隱士歌)」, 이대준, 『낭송가사집』, 세종출판사, 1998, 39-49면. ⑨「은사가」, 이정옥, 『영남내방가사』 제4권, 국학자료원, 2003, 16-32면. ⑩「은ᄉᆞ가」,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2011, http://waks.aks.ac.kr/dir/achieve.aspx?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2019.06.27 검색).

2) 작품 말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임인년"(이본 ①, 1912년); "이 가ᄉᆞ는 경슐년 합방일 말에 충신이 한을 머금고 지은 가사다"(이본 ⑩); "글 지은자 산중농부 초죽감자 쩍먹고 베곱파 지음. 신축연 하육월 초삼일에 은사가 지은 자 정실한 초막 속에 지음"(이본 ⑦) 이 기록의 신축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1961년이 된다. 따라서 신축년은 신해년 즉 1911년의 오기로 보인다; "을미졍월 초오일"(이본 ⑥, 1955년).

3) 주 1)에서 소개한 이본 가운데 ①번 이본을 인용한다.

리로 가득하고 風塵이 자옥했으며 李花[왕실을 상징한다] 한 가지는 처량하기만 했다. 경술국치 후 대한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은유적 표현은 일제의 감시하에 있던 당시에 창작된 가사문학의 일반적인 표현법이었다. 이어 작가는 '삽십육계'가 상책이라고 판단하여 '피난'을 가기로 결심했다. 명문가의 상징이었던 '사모관대'와 '은영총탕'은 물론 가장지물을 다 버리고 대신 '삿갓'과 '죽장망혜'로 대표되는 방랑자의 몸차림으로 길을 나섰다. 그리고 친구들과는 '새 세상이 되거들랑 다시 보자'고 하며 작별했다. 이 작별의 말은 '새 세상이 오지 않으면 고향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으로, 작가의 은거가 일제강점에 대한 비폭력 저항행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중반부는 '은거지에서의 생활'을 서술했다. 작가는 금선동에 도착한 즉시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고 초옥삼간을 지어 정착했는데, 이웃들과 술도 마시며 농사를 지어 포식하니 만사태평이었다. 후반부는 '세상 근심과 후손을 향한 권고'를 서술했다. 작가는 만경대에 올라 국파국망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일제강점의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자손들에게 주경야독을 권유하며 '천운이 순환하여 새 세상이 오거든 입신양명을 할 것이니 피란하여 살아나자'고 하며 끝을 맺었다.

> 조션이 적다해도 모신맹장 많건마는 / 시모르고 때몰라서 은신하고 못나서니 / 육도삼약 나난장수 용무지지 없을소냐 / 억죠창생 저백성이 도탄중에 다빠저서 / 오오한 저모양이 일시가 급건마는 / 어쳔만셰 사직종묘 보국안민 어이할고 / 삼천리 저강산이 임자없이 되단말가 / 오백년 의관문물 피발좌임 되단말가 / 츄로동방 군자국이 한심코 가련하다 / 삼강이 끊쳐지고 오륜이 없어지니 / 군신유의 그뉘알며 부자유친 그뉘아리 / 두천죡지 허다인생 온세상에 둘너보니 / 사람하나 못만내서 산금야수 뿐이로다 / 예전법을 다폐하고 개화법을 새로배와 / 아까울사 소즁화가 합방하여 일보되니

위는 후반부의 한 대목이다. 먼저 대한인이 도탄 중에 빠져 소리치는[嗷嗷] 지경인데, 군사를 써서 싸움을 할 만한 곳[用武之地]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모신맹장이 나서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를 구할 장수의 출현이 한시가 급하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오백 년의 의관문물이 미개한 나라의 풍속[被髮左

社]으로 바뀌어버린 나라의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나라에 삼강오륜이 끊어져 세상을 둘러봐도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고 다만 금수뿐이고, 예전의 법을 다 폐하고 개화법을 새로 배웠기 때문에 소중화 조선이 일본에 합방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작가는 일제의 강점 현실은 물론 유교적 세계관이 개화법으로 대치된 당대의 현실을 동시에 개탄했다.

〈입산가〉는 총 90구로 의병장 李中麟(1838-1917)이 경술국치 직후에 썼다[4]. 이중린은 퇴계의 직계손으로 189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의병에 가담했다. 경술국치 후 일제의 은사금을 거부하고 〈입산가〉를 지은 후 천부산과 속리산 일대에서 은거생활을 하다가 생애를 마감했다.

〈입산가〉의 전반부는 경술국치로 '앞뒤산 구미호'와 '좌우편 도까비'가 판을 치자, 마침 천부산이 딱 '옛날 조선'이어서 은거지로 결정한 것을 서술했다. 중반부는 '현실 개탄과 은거 이유'를 서술했다. 작가는 자신의 은거 이유를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죽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의리에 합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살자 하니 죽은 것만도 못하고, 모든 소문과 벌어지는 꼴을 보기 싫어서'라고 밝혔다. 후반부는 '은거지에서의 생활과 기약'을 서술했다. 농사를 지으며 학동을 교육하다가 "홍수가 물러나고 칠야가 다시밝아 예의지속"이 되는 태평세계가 오면 식구들을 데리고 나와 살겠다고 한 것이다.

〈개세가〉는 총 34구의 짧은 가사로 남원 사람 南谷 蘇學燮(1856-1919)이 썼다. 소학섭은 송병선의 제자이다. 고종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당산에 들어가 절식하다가 10여 일 만에 당년 64세로 타계했다. 창작시기는 전체적인 가사의 내용과 고종의 사망 사실이 서술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경술국치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5].

〈개세가〉는 경술국치 후 나라의 현실에 대한 개탄만을 서술하고 경계의

4) 이중린의 생애, 사상,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장인진, 「운포 이중린의 척사정신과 의병항쟁」, 『영남학』 제9권,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245-293면을 참조했다. 장인진은 이 논문에서 〈입산가〉를 간단하게 다루었으며, 〈입산가〉의 이본, 즉 이대본과 가장본을 소개하며 두 편을 대교하였다. 〈입산가〉의 이대본은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 자료」, 『한국문학연구원논총』 제1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423-424면에 실려 있는 것이다.

5) 『南谷遺稿』에 수록되어 있는 원문이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http://www.gasa.go.kr/)에 jpg 파일로 올라와 있다.

말은 서술하지 않았다. 한문어구를 빈번하게 사용하면서도 AABA의 민요 문체를 중간중간 섞어가며 작가의 참담한 심정을 서술했다.

> 宇宙에 비겨서셔 一場太息 支離ᄒᆞ고 / 楚水吳山 질을너머 獨樂園中 차자가니 / 自古雲林 是非업다 / 箕山을 바ᄅᆡ보니 巢父許由 간듸업고 / 三更明月 홀로쓰고 首陽을 불너보니 / 伯夷叔齊 어듸가고 萬古淸風 나마분다 / 어이ᄒᆞ리 어이ᄒᆞ리 悵望千秋 一灑淚요 / 蕭條異代 不同時라 말씨어다 말씨어다 / 悠悠蒼天아 此何人哉오 獨樂園이 조타ᄒᆞ나 / 너무과이 孤寂ᄒᆞ다 不如太平 同樂地라 / 仰天痛哭 一問兮여 堯舜孔孟 언제볼게

위는 〈개세가〉의 마지막 부분이다. 작가는 한탄만 하다가 험한 길[楚水吳山]을 넘어 심산궁곡의 독락원[司馬溫公이 은거한 곳]을 찾아가 세상의 시비에서 멀어지려 했다. 하지만 그곳은 기산, 소부허유, 수양산, 백이숙제 등이 기리는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그리하여 작가는 중국고사의 시절과 지금 시절이 다르다[蕭條異代 不同時]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말씨어다 말씨어다 / 悠悠蒼天아 此何人哉오"라는 절규 속에서 국망으로 은거지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작가는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은거지에서의 생활에도 안주하지 못했다[6].

마지막으로 〈노정긔라〉[7]는 총 176구로 39세의 양반가 여성[8]이 썼다. "신해납월 이십뉵일"에 대전에 도착하여 다음 날 새벽에 성전촌에 이른 것으로 가사를 끝맺었으므로 창작시기는 1912년 2월 15일(양력)에서 그리 오래 지

---

6) 작가의 행장에는 갑오년의 행적을 기록한 후 곧바로 고종의 승하와 작가의 사망을 기록했다. 「行狀」, 『남곡유고(南谷遺稿)』 권지사 부록. "公自甲午國政大亂以後歛跡自晦, 憫時憂國之志形於詩文者多矣, 嗚呼異學邪說紛紜, 天下道傷俗敗, 憂道憂國之心溢於言辭. 因草上疏一章總若干語, 而未及上聽, 雖在巾衍之中, 其忠節可知也. 戊午十二月聞高宗賓天, 嘆國祚已去, 與其兄葛山公登堂山, 望哭失聲痛哭時, 則臘月晦夜. 因以成病絶食十餘日而卒, 卽己未正月十四日也." 따라서 갑오년 이후부터 작가의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아 경술국치 후 그의 은거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개세가〉의 내용에 의하면 그가 경술국치 후 남원을 멀리 떠나 심산궁곡으로 들어간 것만은 분명하다.

7)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35권, 아세아문화사, 1998, 415-433면.

8) 인량은 '팔종가'로 유명할 만큼 전통적으로 양반가가 많이 살았던 곳이고, 작가는 친정인 원구촌에 대해 '번화제족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노속 사오인'을 거느리고 대구까지 가마와 마차를 타고 간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양반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나지 않은 때이다.

〈노정긔라〉는 "이십여명 너문소솔"과 함께 시댁인 "일량"(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을 떠나 "성전촌"(대전시 유성구 학하동)으로 이주하는 노정을 서술했다. 전반부는 떠날 날짜를 정했으나 시동생의 병환과 사망으로 발행이 연기되었음을 서술했다. 중반부는 인량을 출발하여 "중구봉화[9] 원구촌"(영덕군 창수면 원구리)의 친정어머니와 작별하는 것을 서술했다. 후반부는 영덕, 포항, 경주, 영천 등을 지나 대구에서 기차를 타 대전에 내려 밤새 30리를 걸어 새벽에야 성전촌에 도착한 것을 서술했다.

〈노정긔라〉는 작가가 이주하는 이유를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보면 단순한 노정기(기행가사)로 보인다. 그런데 작품을 자세히 읽으면 작가의 이주 동기가 경술국치로 인한 은거임이 드러난다.

①어와친쳑 고국내야 이내소회 드러보소 / 새상에 풍진난새 온천하가 일체로다 / 이엇지 관게데랴 오날형새 이러할가 / 일평생에 먹은ᄯᅥ지 타도타관 원하랴고 / 조코조흔 원구일량 실은다시 마다하고 / 고ᄃᆡ광실 조흔집을 포진천물 메메하고 / 허다한 가진세간 허산바산 헛처부고 / 원근친쳑 다바리고 백발노모 원별하고 / 이어데로 가잔말고 어마어마 우리어마 / 오날날 나애행지 참괴하고 해참하다

②슬푸다 오날이야 / 기구과관 우리행지 우숩고도 가소롭다 / 풍진세계 이럿커든 장네만복 츅원이로다 / 집이라 차자든이 삼칸초옥 ᄶᅥ적문에 / 벡가지 구비하다 어와지쳑 고국네야 / 어나ᄯᅦ나 다시볼고 새월이 무궁하니 / 다시만나 반깁시다 전후전말 이가사을 / 자서히 살피시고 청풍명월 호시절과 / 세세연연 노달기예 날본다시 반기시오

①은 〈노정긔라〉의 서두, 그리고 ②는 마지막 부분이다. 작가는 ①과 ②에서 '고국네'를 청자로 끌어들임으로써 이 이주가 단순한 이사가 아님을 암시했다. 그리고 작가는 ①에서 "세상의 풍진난세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이주가 있었겠는가"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풍진난세'는 일제의 식민지가 된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②에서도 작가는 성전촌에 도착하여 '장내 만복을 축원'

9) "중구봉화"는 '중구봉하'의 오기로, 원구촌 마을의 주봉인 '중구봉 아래'라는 뜻이다.

하기 전에 “풍진세계 이럿커든”라는 말을 다시 썼다. 나라를 잃은 풍진세계에서 장래의 복을 비는 것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쓴 대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작가는 은거지로 가는 내내 한탄의 말을 계속 쏟아내었다. 작품 전체에서 가는 곳이 성전촌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에 나오는 “이어데로 가잔말고”라는 한탄을 세 번이나, 그리고 ②에 나오는 “슬푸다 오날이야”라는 한탄을 두 번이나 서술했다. 그리고 ①에 나오는 “오날날 나애행지 참괴하고 해참하다”나 ②에 나오는 “기구과관 우리행지 우슙고도 가소롭다”라는 구절 등으로 참담한 심정을 서술하곤 했는데, 경술국치로 인한 은거이기에 나올 수 있었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작가의 노정이 경술국치로 인한 은거임은 포항에서의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작가는 “사방에 외인들”이 “압뒤골목 동태소래 우룩쓸룩 위엽하고” 있어 “촌양은 흥흥하나 잠시유키 어렵도다”라고 적었다. 사방에 깔린 왜순사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경계심은 일제에 대한 작가의 저항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만주망명

경술국치 후 만주로의 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작가들이 1910년대에 창작한 ‘만주망명가사’로는 〈분통가〉(1913)・〈히도교거ᄉᆞ〉(1911)・〈정화가〉(1912)・〈간운사〉(1914)・〈조손별서〉(1913-4)・〈정화답가〉(1912-3)・〈위모사〉(1912)・〈원별가라〉(1916) 등이 있다. 한편 고국에 있는 여성이 만주망명자를 그리워하며 1910년대에 창작한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로는 〈송교행〉(1912)・〈답사친가〉(1914)・〈감회가〉(1913)・〈별한가〉(1915) 등이 있다. 이들 가사에 대한 기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10].

10) ‘만주망명가사’와 ‘만주명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에 대해서는 고순희, 『만주망명가사연구』, 박문사, 2014a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들 가사의 자료 및 이본은 고순희, 『만주망명가사 자료』, 박문사, 2014b에 실려 있다. 한편 〈히도교거ᄉᆞ〉・〈정화가〉・〈정화답가〉는 최근에 성호경・서해란, 「만주 망명 여성가사 〈히도교거ᄉᆞ〉・〈정화가〉와 〈정화답가〉」, 『한국시가연구』 제46집, 한국시

이 중 유일한 남성작인 〈분통가〉는 독립운동가 김대락이 썼다. 망국의 현실에 대한 개탄, 망명 결심과 서간도 도착 과정, 충신열사의 회고, 노장의 적섬멸 의지, 독립 후의 세상 기원, 청년학도에 대한 권고 등을 서술했다.

〈히도교거ᄉᆞ〉·〈정화가〉·〈간운사〉·〈조손별서〉는 독립운동가 김우락이 썼다. 〈히도교거ᄉᆞ〉는 결혼과 친정나들이, 아들의 결혼, 갑오년 동학과 피난, 딸의 결혼과 우귀, 남편의 경무청 조사, 경술국치와 만주로의 망명노정, 항도촌 도착과 생활, 통화현 도착과 문중인과의 만남, 경계의 말 등을 서술했다. 〈정화가〉는 독립운동가인 오빠 김대락의 방문, 통화현의 오빠집 방문과 친정 식구와의 회포, 통화현 부중에 사는 동기친척과의 만남, 딸의 집 방문과 귀가 등을 서술했다. 〈간운사〉는 고국의 형제를 그리워하며 쓴 가사로, 결혼과 이별, 갑오년 이후의 삶과 만주망명, 만주에서의 생활, 재회 다짐 등을 서술했다. 〈조손별서〉는 하회마을의 맏손녀에게 쓴 가사로, 손녀의 결혼, 남편의 망명결심과 손녀와의 이별, 손녀에게 망명을 권유한 사연, 만주 가족의 손녀 생각, 경계의 말과 덕담, 아들의 귀향과 고향인에 대한 고마움 등을 서술했다.

〈정화답가〉는 〈정화가〉에 대한 답가로 김우락의 올케 영양남씨가 썼다. 김우락과의 인연, 망명과 통화현 정착과정, 김대락 방문과 김우락과의 만남, 김우락의 험담에 대한 반박, 감회 등을 서술했다.

〈위모사〉와 〈원별가라〉는 젊은 여성이 썼다. 〈위모사〉는 김대락 문중의 며느리인 이호성이 썼다. 조선의 역사와 일제강점의 현실, 난세의 이주 사례, 서간도의 살기 좋음, 남녀평등의 시대, 고국과의 이별가, 통화현 도착과정 등을 서술했다. 남녀평등론을 주장하며 만주에서 당당하게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원별가라〉는 독립운동가 황만영 문중의 며느리가 썼다. 성장 및 결혼, 경술국치 후의 현실, 만주망명 결정, 시댁 출발, 친정과의 이별, 만주 도착 여정, 만주생활 등을 서술했다. 만주로의 여정 중에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독립운동가로 확립해나감을 보여주었다.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 중 〈송교행〉은 만주로 떠나는 딸(〈위모

가학회, 2019, 165-205면에서 소개되었다.

사〉의 작가)을 향해 그 어머니인 안동권씨가 썼다. 딸의 결혼을 서술한 후 딸을 향한 이별사를 서술했다. 〈감회가〉와 〈별한가〉는 독립운동가 이승희의 부인인 전의이씨가 썼다. 두 가사는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거듭거듭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으로써 일제강점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답사친가〉는 〈조손별서〉에 대한 화답가로 김우락의 맏손녀인 고성이씨가 썼다. 일제강점의 현실, 조부의 망명과 친정식구와의 이별, 결혼과 부모 이별, 숙모와 부모에 대한 그리움, 부친 이별, 조모와 남동생 기원, 독립 기원 등을 서술했다.

'만주망명' 유형에 여성 작가가 많은 것은 만주로 동반 망명한 여성들이 규방가사의 창작 전통을 만주에서도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만주로 간 여성들은 자신의 만주망명 경험과 서정을 고향에서 늘 하던 것처럼 가사를 통해 봇물 터지듯이 토해낸 것이다. 만주로 망명한 남성은 초창기 독립투쟁의 기반 마련과 현장 참여에 여념이 없어 상대적으로 고국에서의 가사 창작 전통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고향 기반

(1) 현실 개탄과 경계

경술국치 후 은거나 망명을 택하는 대신 고향이나 고향 인근에 계속 사는 것을 택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작가 중에 망국의 현실을 개탄하고 경계의 말을 서술한 '현실 개탄과 경계'의 가사를 창작한 작가가 있다. 이 유형으로는 〈고국가라〉(1911)·〈경세가〉(1912)·〈시절가〉(1917)·〈대한복수가〉(1918)·〈인산가〉(1919)·〈자심운수가〉(1916년 이전)·〈애자가〉(1919년 이전) 등이 있다.

이 중 일제강점기에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가사는 〈시절가〉로 총 414구나 되는 장편가사이지만 확인된 이본만 20편이나 된다. 작가는 영남지역에 거주한 양반가의 남성일 것으로 추정되며, 창작시기는 1917년경이다[11].

11) 〈시절가〉에 대한 이본, 작가 추정, 내용, 가사문학사적 의의 등은 고순희, 「일제강점기 〈시절

〈시절가〉의 전반부는 일제의 강점 야욕・을사늑약・경술국치 등으로 이어진 지나간 역사, 변화된 사회상, 동류를 향한 권고 등을 서술했다. 중반부는 조선의 연도별 사건, 정감록과 권고, 십승지의 나열과 권고, 피신지의 나열과 권고, 주역과 풍수의 나열 등을 서술했다. 당시 민족사 최대의 수난기에 진인출현설이나 십승지 등이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 나갔는데, 작가는 이것들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도 장황하게 서술했다. 후반부는 까마귀・청조새・요동개를 호명하며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일제의 탄압 현실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이화꽃을 호명하며 고종과 대한국민이 처한 현실을 개탄했다.

〈시절가〉는 한자성어 및 중국고사, 정감록과 비결의 용어, 그리고 은유적 표현이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당대 독자들이 작가의 현실 인식에 공감했다는 점, 정감록과 비결이 국권을 잃은 대한인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 AABA형・호명・동일구문의 나열 등의 민요적 문체가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국가라〉는 총 59구의 짧은 가사로[12] "태백산중의 인양초당"에 살고 있는 인물이 썼다. 내용 중에 고종이 생존해 있고, 주로 경술국치 직전의 항일 인물을 서술했으며, "신정"에 가사를 지은 점 등으로 보아 창작시기는 경술국치 직후인 1911년 1월 1일로 추정된다.

〈고국가라〉는 제목에 '고국'을 써서 이 가사가 망국 현실에 대한 개탄가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일제강점으로 개화된 문명과 변화한 제도를 개탄하고, 이어 "가자서라 가자서라 고국차자 가자서라"라고 하며 독립운동을 고취하고 중국의 절의지사와 항일충열지사를 서술했다.

> 가자서라 가자서라 어자개방 가잔말고 / 사면에 화망이요 동쳥애 함졍이라 / 서안국을 가자하니 길방이 어대련고 / 우주에 비겨서서 고드름 바래보나 / 막막한 지구상애 갈길이 아득하다 / 태백산중 유발승이 고백회 업훈후애 / 인양초당

가〉 연구」, 『영남학』 제66집,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8, 351-383면에서 자세하게 논의했으므로 여기서는 이 논문을 참조해 간략하게 정리했다.

12) 원문이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http://www.gasa.go.kr/)에 jpg 파일로 올라와 있다.

놉히누워 신졍애 천고여한 / 대령가 화답하니 한관루애 다시볼가

위는 〈고국가라〉의 마지막 부분으로 필사에 오기가 많지만 대강의 의미는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작가는 '고국을 찾으러 가자'고 한 바 있지만 '사면에 화망이요 동청(?)에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몰랐다. 서안국(?)을 가자고 해도 吉方을 알 수 없어 갈 수 없었다[13]. 결국 작가는 한겨울에 고드름을 바라보며 막막하고 아득한 심정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일제가 강점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할지 모르는 무기력한 작가의 정서 상태를 보여준다.

〈경세가〉는 총 221구이며, 애국계몽사상에 투철한 개화파 지식인이 썼고, 창작시기는 1912년 봄이다[14].

〈경세가〉는 경술국치와 나라의 현실, 수구당에 대한 비난, 문명개화사상의 권고, 구시대 여성의 처지와 개탄, 개명 못해 망한 나라와 경계, 외국 개화인의 업적, 독립운동 권고와 외국의 예, 여성에 대한 권고, 독립군 조직의 권고 등을 서술했다. 작가는 경술국치를 수구당의 탓으로 돌리면서 독립을 위한 문명개화를 주장했다. 특히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도 구국의 대열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인물에 대한 지식을 장황하게 설파하면서 문명개화와 독립운동을 호소한 것이다.

어화일국에 남녀노소 수구악습 다든지고 / 노예성질 버서뿌고 민주주의 연구하세 / 일국에 남녀노소 일심으로 단체하야 / 우리나라 차즌후에 우리한번 살아보세 / 자위신모 하지말고 애국사상 진작하야 / 세계일층 무데상에 우리한번 노라보세 / 학교사읍 젼메한이 지식이 유치하고 / 노예성질 배양하야 자유평등 없었은이 / 외국인물 한번보며 두말도 못하면서 / 집에앉아 데답하되 이적이니 금

13) 西安國은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길에 있는 나라 중 하나인 伐地國을 말한다. 그러나 문맥상 '서안국'은 경술국치 후 가장 많은 애국지사들이 향한 '서간도'가 아닐까 한다. '길방'은 당시 대한국민이 신봉했던 비결에서 말하는 '길한 곳'을 의미한다.

14) 원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623-631면에 실려 전한다. 권영철은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에서 〈경세가〉를 다루었다. 「신변탄식류」에서 '우국개세탄'과 '세상의 물정을 탄식한 것' 항목에서 다루었으며, 「영사류」에서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같은 책, 87-88, 370면.

소로다 / 깁흔공화 민주정치 등급없다 기롱하고 / 광공화확 실이학을 조금도 모
러면서 / 수구가 좃타하야 수구당이 투입한이

위에서 작가는 수구악습을 버리고 개화문명사상을 받아들여 나라를 되찾자고 주장했다. 수구악습의 노예성질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자, 일심으로 단결하여 나라를 되찾자,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애국사상을 키워 세계의 무대에서 놀아보자고 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학교가 없어 지식이 유치하고 노예성질만 많았으며 자유평등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수구당은 외국인을 금수로만 여기며 공화민주정치를 비웃기만 하고 '광공화학'과 '실리학'을 모른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大韓復讐歌〉는 총 109구로 澗愚 金斗滿(1872-1918)이 1918년에 썼다[15]. 김두만은 경북 영천 사람으로 김흥락과 이만도의 제자이다. 경술국치 후에는 청송으로 이주해 서당을 열고 후학을 가르쳤다.

어려운 한문구를 많이 섞어 쓴 〈대한복수가〉의 작품세계는 의외로 단순하다. 나라의 현실에 대한 소회, 창의궐기, 의병・열사・순절자 등을 서술한 후, 후반부에서는 각도 의병이 남북으로 진격해 한성의 총독을 잡고 황제를 복위시킨 것을 서술했다. 후반부에서 거론한 의병 중 이강년・민긍호・조성길・장승원 등은 이 가사를 창작할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인물이기 때문에 후반부는 일제에 복수하는 꿈을 가상으로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因山歌〉는 총 74구로 小巖 金永燦(1866-1933)이 1919년에 썼다[16]. 김영찬은 경북 영양 사람으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 다녔으며 서당을 열어 학동을 가르치기도 했다. 의병대장 김도현을 중심으로 친족 40여 인이 모두 의병에 참여한 문중의 영향으로 의병에도 참여했다.

〈인산가〉는 망국의 한을 인산에 집약시켜 서술했다. 중간중간에 고종의 등극, 덕수궁으로의 이전, 고종의 인산행렬 등을 서술하면서 고종을 잃은 슬픔과 나라의 현실에 대한 개탄을 서술했다. 확인된 이본이 5편이나 되는 〈인산

15) 작품 원문은 홍재휴 교주, 「大韓復讐歌」, 『(國譯)澗愚逸稿』 권지삼, 潁溪澗愚逸稿刊行所, 1986, 1-13면에 실려 있다. 홍재휴의 「大韓復讐歌攷」도 같은 책, 16-53면 부록에 실려 있다.
16) 홍재휴, 「소암가사연구」, 『연구논문집』 제36집, 대구효성가톨릭대, 1988, 9-38면.

가〉는 경북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향유되었다[17]. 일제강점의 현실에 분노하고 고종의 승하를 슬퍼하는 〈인산가〉가 경술국치에다가 마지막 황제마저 승하하자 큰 충격에 빠진 대한인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애자가〉(1919년 이전)[18]는 당시 신문매체 가사의 영향을 받은 분연체 가사이다. 총 8연으로, 각 연은 서두에 "금자동아 옥자동아"에 이어 3구를 서술한 후 3구의 마지막을 "어화둥둥 ᄂᆡ아달"로 끝맺어 '아이 어르는 민요'의 형식을 차용했다. 매국적은 되지말자, 타인노예 되지말자, 지식발달 하여보자, 공익사업 다수하자, 위국헌신 하여보자, 노예학은 배우지 말자, 대한독립하는 날에 태극기를 높이 들자 등의 경계의 말을 서술했다[19].

〈자심운수가〉는 총 158구로 16세의 '강소저'라는 미혼 여성이 썼다[20]. "병딘삼월십칠"에 필사를 마쳤다는 기록, 명문대가의 망명 사실에 대한 언급 등으로 볼 때 창작시기는 1911년에서 1916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심운수가〉의 전반부는 '자탄가'로 부친의 사망과 신세 한탄, 오빠의 결혼과 찬양, 여자된 한탄, 화전노름의 흥취 등을 서술했다. 후반부는 '시절가'로 나라의 현실과 세태, 은거 생각과 불안, 오빠 축원 등을 서술했다. 후반부 중 나라의 현실을 서술한 부분을 인용해본다.

---

17) 가사 전문이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因山歌〉 - 홍재휴, 앞의 글, 1988. 이 논문에는 권씨 가장본이 실려 있다; ②〈인산가(因山歌)〉 - 홍경표 외, 「영사류가사 연구」, 『여성문제연구』 제14집,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 1985, 9-153면. 〈인산가〉는 같은 책, 47-49면에 실려 있다. 이 논문은 권영철, 앞의 책, 293-506면에 실려 있다; ③〈인산가〉 -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영주·봉화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397-398면; ④〈인ᄉᆞᆫ별곡〉 - 이정옥, 『영남내방가사 제1권』, 국학자료원, 2003, 212-217면. 이 이본은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2011, http://waks.aks.ac.kr/dir/achieve.aspx?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2019.06.27 검색)에 실린 것과 같은 것이다; ⑤〈인ᄉᆞᆫ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1&VerseID=V00005067(2019.06.27 검색).

18)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에 jpg 파일로 올라와 있다. 가사의 마지막에 "기미이월 초십일 등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 창작시기는 1919년 이전이다.

19) 경계의 말을 반복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아 작가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0)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에 가사의 원문이 jpg 파일로 올라와 있다. 작품 말미의 기록에 "이가ᄉᆞ난 봉ᄃᆡ 강소졔 십육셰 방신으로 (…)"라 했다. '小姐'란 '아가씨'를 말하며, 작품의 내용에도 작가 자신의 결혼을 서술하지 않았다.

①ᄐᆡ평셰계 우리나라 왕운이 불길턴가 / 천운이 막비턴가 무지ᄒᆞᆫ 강국이니 / ᄉᆞᆷ쳘이랄 업혀시니 억조ᄎᆞᆼᄉᆡᆼ 만은인민 / 어나뉘가 건져ᄂᆡ고 영웅호걸 명현달ᄉᆞ / 시간이 다못ᄎᆞᆫ가 무죄ᄒᆞᆯ사 우리동포 / 앗가울사 목슘이여 츄풍낙엽 되단말가 / (…) / ②명현문 ᄃᆡ가ᄌᆞ손 망명도쥬 거동보소 / 고ᄃᆡ광실 조흔ᄀᆞ사 남젼북답 너른젼지 / 고국산쳔 이별ᄒᆞ고 말이타국 ᄯᅥ나갈졔 / 일가친쳑 게분묘랄 마음ᄃᆡ로 젼송ᄒᆞ니 / 그도ᄎᆞ역 통곡체오 명문쳥가 일ᄃᆡ소연 / 슈신졔가 젼폐ᄒᆞ고 단발ᄀᆡ명 웬일이며 / 상ᄒᆞ분별 기쳔디고 무볍쳔지 어이할고 / (…) / ③십승지 차ᄌᆞ가셔 ᄉᆡᆼ할곳 보고오나 / ᄇᆡᆨ슈노친 자별동긔 긔무잇계 ᄆᆡ셔다가 / 편졔뉘화 ᄒᆞ로 희희 잘잇다가 평ᄋᆞᆫ셰계 만나거든 / 고향ᄉᆞᆫ쳔 도라와셔 격양가나 불너보ᄉᆡ / 이리져리 구앙ᄒᆞ여 아모리 ᄉᆡᆼ각ᄒᆡ도 / ᄉᆞᆷ남ᄃᆡ로 읍즁가의 완젼여구 잇다가난 / 일진광풍 당두ᄒᆞ야 억만군ᄉᆞ 기격즁 / 발펴쥭지 아니ᄒᆞᆯ가 망망ᄃᆡᄒᆡ 깁픈물의 / 슈즁고혼 아닐넌가 여광ᄒᆞᆫ 이심ᄉᆞ가 / 아모리 실승ᄒᆡ도 유익이 젼혀업ᄂᆡ

①에서는 일제가 삼천리강산을 엎어 버렸으나 대한인을 건져 낼 영웅호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인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동포들의 목숨이 추풍낙엽과 같이 되었다고 했다. ②에서는 명문가의 자손들이 '망명도주'를 할 때 "일가친쳑 게분묘"를 마음대로 전송(?)한 일과 명문가 소년의 단발개명을 비난하고, 상하분별이 없어지고[棄天地] 무법천지가 된 세태를 개탄했다. 여기서 당시 대한인 사이에 명문가의 만주망명이 '도주'로 왜곡, 이해되기도 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③에서는 먼저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십승지로 들어가 살다가 '평안세계'가 오면 고향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서술했다. 그러나 은거지로의 避禍가 여의치 않았으므로 '읍중에 예전대로 있다가는 군사들에게 밟혀 죽거나 망망대해에 빠져 죽을지 모른다'고 하여 불안감에 휩싸인 심정을 드러냈다.

이상으로 정면으로 나라의 현실을 문제 삼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를 살펴보았는데, 이 당시 창작된 가사 작품 중에는 부분적으로나마 나라를 잃은 현실을 통탄하거나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서술한 작품이 많다. 예를 들어 〈유산일록〉(1911)은 춘유가계 가사이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안동지역 가문들의 해체와 만주망명과 같은 시대적 상황'을 가사에 담았다. 여정의 곳곳에 울울한 심사를 드러내고, 만주로 망명한 친정식구들을 생각하며 비통해

하기도 하고, 망국의 슬픔에 잠을 설치기도 한 것이다[21]. 그리고 〈노탄소회록〉(1920)은 80세의 여성이 나홀로 늙어감을 한탄한 가사이지만, "슬푸다 아동방 예의지국 엇지타 / ᄎᆞ경의 니러ᄂᆞᆫ고 봉ᄂᆡ오운 ᄉᆞ라지니 / 무쥬ᄇᆡᆨ셩 가련ᄒᆞ다 돗탄즁의 ᄲᅡ진창싱 / 어ᄂᆞ셩군 건져ᄂᆡ고 ᄂᆡ비록 암실즁 아녀ᄌᆡᄂᆞ / 국망지ᄉᆞ ᄉᆡᆼ각ᄒᆞ면 울울분분 통탄커든"이라고 하여 나라의 현실을 통탄하기도 했다.

(2) 역사서술

경술국치 후 고향이나 고향 근처에 머물며 사는 길을 택한 사람 중에서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작가들도 있다. '역사서술' 가사로는 〈한양가〉(1913)·〈문소김씨세덕가〉(1911)·〈신의관창의가〉(1913)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가사는 확인된 이본만 26편[22]이나 되는 〈한양가〉로 司空穟(1846-1925)가 썼다. 사공수는 군위 출생으로 빈한한 가정에서 학문에 정진했으나 집을 떠나 유랑하며 살았다. 상주에서 학동을 가르치던 1913년 정월에 〈한양가〉를 완성했으며, 문경에서 후생을 가르치다가 생을 마감했다. 〈한양가〉의 창작시기는 1913년이며, 창작 당시 작가의 나이는 68세였다[23].

〈한양가〉는 조선왕조 오백 년의 역사를 기록한 장편가사로 경술국치 이후의 서술만 해도 그 분량이 상당하다. 경술국치 이후의 부분은 경술국치 후 순절한 열사, 왕궁의 사정, 국파군망의 현실 개탄, 1911년 9월 서울의 광경, 조선의 인군과 왕비 및 단군조선부터 조선중기까지의 역사, 붕당·적서제도·신분제도의 폐해 등을 서술했다.

> 임자연 섯달부터 기축연 정월까지 / 날마다 지여ᄂᆞᆫ이 그공역이 오작할가 / 장

21) 김윤희, 「안동의 여성 독립운동가 김락의 가사 〈유산일록〉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과 예술』 제22집, 숭실대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17, 93-117면.
22) 정영문, 「이본 대조를 통한 〈한양가〉의 텍스트 확정 문제—박순호본 〈한양오백년가〉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과 예술』 제10집, 숭실대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12, 61-97면.
23) 최강현, 「왕조 한양가의 이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32집, 국어국문학회, 1966, 81-90면.

수을 도합하니 一百의 두장이요 / 귀수을 회계한즉 三千예순 아홉귀 / ᄌᆞᄌᆞ 분한마음 자자이 원통한일 / 무어시 분하오며 무어시 원통한가 / 한양이 망한후ᄋᆡ 망국ᄇᆡᆨ성 ᄃᆡ난거시 / 그거시 분한기요 글공부 하여다가 / 八十이 다ᄃᆡ도록 진사 한장 못ᄒᆞ온이 / 그거시 원통하다 그中ᄋᆡ 생각하니 / 八道의 억조창생 日本百姓 되단말가 / ᄌᆞ다가도 생각하니 칼을물고 죽고저라 / 조약시의 쥬것던지 合邦시의 쥬것든지 / 그른젹ᄋᆡ 죽엇던들 일흠이나 잇실거설 / 지금언 죽드ᄅᆡ도 아모ᄃᆡ도 실ᄊᆡ업다 / ᄌᆞ황하고 지리하니 그만져만 그치보ᄉᆡ[24]

위는 나산처사본 〈한양가〉의 마지막 부분이다. 작가는 먼저 〈한양가〉를 1912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1월에 완성했는데, 102장에 3069구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망국백성이 된 것과 진사조차 되지 못한 것이 분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일본 백성이 된 것이 가장 원통하다고 했다. 이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칼을 물고 죽고 싶다고 하면서, 을사늑약이나 경술국치 때 순절했으면 명성이 남았을 테지만 지금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여 순절하지 못한 자의 죄의식을 토로했다.

〈문소김씨세덕가〉는 총 333구로 井山 金祚植(1873-1950)이 썼다. 김조식은 김대락의 조카로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했다. 김조식은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아들 김문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대조선독립단의 박용만장군과 사탕수수밭을 경작하며 수입의 일부를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냈다고 한다[25].

세덕가는 대부분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창작되었는데, 작가의 상당수가 독립운동가인 점에서 단순히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제 침략에 저항하고 일본에의 동화를 거부하는 민족주체의식'에서 창작된 것이다[26]. 〈문소김씨세덕가〉는 이러한 세덕가의 시초가 되는 작품이다.

---

24) 권영철, 앞의 책, 313-314면.

25) 최근에 중국에 살다가 60 넘어 한국국적을 회복한 손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김조식의 아들 김문로는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계속하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살던 중 1969년 친일파로 몰려 고문 끝에 사망했다. 중국에서 출생한 손자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2001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셋집을 전전하다 겨우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천석지기' 독립운동 가문, 후손은 임대주택으로」, 오마이뉴스, 2013.8.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6345&CMPT_CD=SEARCH(2019.06.27 검색).

내용은 매우 단순하여 안동 천전김씨 문중의 내력과 주요 인물을 연대순으로 서술했다. 가사의 서두에서 창작동기를 '왜국이 나라를 훔쳐 종묘가 공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목세신이 피로 얼굴을 씻고 눈물을 삼키는데도 조상의 분묘에 쓰인 휘함도 모를까봐'라고 밝혀 놓았다. '나라의 묘인 종묘'와 '문중의 묘'를 우리의 역사로 동일시하여 후손들이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가사를 창작한 것이다.

〈申議官倡義歌〉는 총 628구의 장편가사로 문경 사람 島庵 申泰植(1864-1932)이 쓴 의병가사이다[27]. 신태식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중추원 議官으로 일했지만 1906년 문경에서 의병에 가담한 후 1908년 12월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다. 출옥한 후에도 독립운동 활동에 가담했다. 신태식은 의병활동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4-5년의 감옥생활 후 1912년 12월에 특사로 풀려났다[28]. 따라서 창작시기는 1913년이며, 가사를 지을 당시 작가의 나이는 50세였다.

〈신의관창의가〉는 전체적으로 조선의 흥성과 을사늑약에 대한 개탄을 짤막하게 서술한 후 문경에서부터 시작한 '의병활동'을 자세히 기록했다. 후반부에서는 체포, 서울압송, 투옥, 일인의 심문, 선고 및 4-5년의 감옥살이, 특사방면, 방면 후 집 도착과정 등도 서술했다. 이렇게 후반부에서 작가 개인의 경험을 서술하기도 했지만, 총 628구 중에 427구나 할애하여 의병전투를 서술함으로써 의병 전체의 기록이 될 수 있었다. 죽음과 고통을 불사한 항일의병활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함으로써 식민지하의 후손과 대한인에게 독립운동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다.

---

26) 김인구, 「세덕가계 가사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제84집, 국어국문학회, 1980, 256-265면. 김인구는 이 논문에서 가사의 창작시기를 1912년으로 기술했다. 그런데 필자가 천전김씨 문중에서 얻은 활자본 소책자 『문소김씨세덕가』(비매품)에 실린 작가의 손자 김시항의 「정리를 마치며」에는 1911년으로 적고 있다. 김조식이 만주로 망명하기 직전에 이 가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27) 김용직, 「항일저항시 〈신의관창의가〉」, 『한국현대시연구』, 일지사, 1974, 390-432면. 이 논문의 405-432면에 작품이 활자본 형태로 실려 있다.

28) "재판소서 호출터니 삼등감(三等減)해 십년(十年)이라 / 사오년(四五年) 고적(孤寂)함은 구불가(苟不可) 형언(形言)일래 / 좋을시고 임자칠월(壬子七月) 목인(睦仁)이가 절명(絶命)이라 / 우리가기 바쁘잖다 일본운수 다되거늘 / 주소(晝宵)로 왕축타가 소원성취(所願成就) 되었으니 / 이아니 즐거우며 어찌아니 쾌락할까 / 십이월 십팔일에 본감에서 호출왔네 / 전옥실(典獄室) 들어가니 교호사(敎護師) 연설이라 / 특사장(特赦狀) 내어주며 방면(放免)이라 칭찬허네"

3. 전개 양상의 의미와 가사문학사적 의의

1) 전개 양상의 의미

앞장에서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창작된 1910년대 가사'의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각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을 다시 통합하여 그 전개 양상의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은거' 유형은 안락한 세거지를 버리고 궁핍한 은거지로 이주하는 과정과 은거지에서의 생활을 서술하여 나라의 현실과 일제강점에 대한 개탄적・비판적 서술이 없었다면 단순한 은일가사나 기행가사의 혼합유형으로 보인다. 〈은사가〉와 〈입산가〉에서 작가는 은거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개세가〉와 〈노경긔라〉에서는 울분과 불안감으로 은거생활에 안주하지 못함을 서술했다. 하지만 이들의 은거는 애써 만족을 표현하든 있는 그대로의 울분과 불안감을 표현하든 모두 일제가 강점한 현실에서 편안하게 사는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自淨'의 행위였다. 이 유형의 가사는 경술국치 후 은거라는 비폭력 저항행위로 일제의 강점을 거부했던 당대인의 존재와 그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

'만주망명' 유형은 만주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창작된 것으로 그중 만주망명 가사는 사친가・원별가・신변탄식가・기행가사・현실개탄가 등의 유형을 혼합한 형태를 지닌다. 〈분통가〉 외에 모두 여성작인데 대부분은 만주 망명 이전의 삶, 경술국치로 인한 나라의 현실에 대한 개탄, 만주로의 망명 노정, 고국의 육친을 그리는 심정을 서술했으며, 일부는 만주에서 육친 및 고향인을 만나고 돌아온 여정을 서술하기도 했다. 이들 여성 작가는 남편과 동반하여 만주로 망명한 것이었지만, 남성 못지 않은 독립운동의지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한편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는 원별가와 신변탄식류가사를 혼합한 형태를 지닌다. 일제의 강점 현실을 직접적으로 개탄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끊임없는 그리움과 신세한탄을 통해 망국의 부당함과 독립에의 갈망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이 유형의 가사는 경술국치 후 혁신유림 문중에서 얼마나 많은 문중인이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투신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주 독립운동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함께 있었는지, 경

술국치가 얼마나 많은 대한인을 이산의 고통에 빠뜨렸는지 등을 증언한다.

한편 경술국치 후 은거나 망명을 택하는 대신 '고향 기반'으로 살면서 '현실 개탄과 경계'와 '역사서술' 유형의 가사를 창작한 작가도 있었다. '현실 개탄과 경계'의 가사는 대부분 일제 강점의 현실을 끊임없이 개탄하는 가운데 나라를 구할 영웅을 구하고 일제에 의해 변화된 개화세상을 비판하며 유교적 가치관의 회복을 주장했지만, 수구파를 비판하며 문명개화를 주장한 작품도 있었다. '역사서술'의 가사는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여 궁극적으로 독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한 의도로 조선・가문・의병전투의 역사를 서술했다. '고향 기반' 유형의 가사는 향촌사회 곳곳에 살고 있었던 당대의 대한인 모두가 경술국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는 공통적으로 나라를 잃은 현실을 개탄하고 독립의지를 다지는 내용을 담으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26편의 가사문학은 경술국치 후 1910년대를 살아간 대한인의 민족의식과 각 개인의 다양한 삶과 현실인식을 반영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의 작가는 대부분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양반가 일원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은 작가가 안동의 명문대가인 내앞김씨・진성이씨・풍산류씨・안동권씨・고성이씨 문중의 일원으로 특히 8명이나 되는 작가가 김대락의 내앞김씨 문중과 연관되어 있었다. 경북지역 작가는 울진(원별가라), 성주(감회가・별한가), 영덕(노졍긔라), 영천(대한복수가), 영양(인산가), 태백산중(고국가라), 군위(한양가), 문경(신의관창의가), 영남지역(시절가) 등 출신이었다. 경북지역 외의 지역은 서울(은사가), 남원(개세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지역(자심운수가・경세가・애자가) 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작가의 상당수가 독립운동과 관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가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운동가로 추서된 사람은 〈입산가〉의 이중린, 〈분통가〉의 김대락, 〈신의관창의가〉의 신태식, 그리고 아주 최근에 추서된 〈히도교거ᄉᆞ〉・〈정화가〉・〈간운사〉・〈조손별서〉의 김우락이다[29]. 한편 독립운동의 현장

에 있었거나 그 현장과 관련한 작가는 〈문소김씨세덕가〉의 김조식, 〈인산가〉의 김영찬, 만주망명가사의 여성 작가 3명, 만주망명자를 둔 여성 작가 3명 등이다. 이렇게 독립운동과 관련한 작가는 모두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인물로 나타난다.

근대기에 이르러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명문대가에서 의병활동, 애국계몽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행보를 거친 혁신유림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 특히 안동은 의병의 최초 발상지로 공식적으로 추서된 독립운동가가 제일 많이 배출된 지역이다. 근대기에 이르러 전통적으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유림문중 내, 혹은 유림문중 간의 결속력이 일제에 저항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여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세기에 이르러 전통적으로 양반가가 많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이 가사 창작의 중심지가 되기에 이른다. 양반가 여성이 19세기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규방가사 필사본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1910년대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가사가 대부분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에서 창작되었고, 작가의 대부분이 독립운동과 관련한 것은 당시 이 지역에서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 지역이 가사 창작의 중심지였다는 점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는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의 지역적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는 대부분 단발개명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조선시대의 문물과 제도를 지향하며, 개화문명으로 인해 변화한 세태를 비판하고 삼강오륜과 義와 같은 유학적 가치관의 붕괴를 개탄하는 인식을 보였다. 심지어 극히 일부이긴 하지

29) 김우락 여사는 20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가(애족장)로 추서되었다.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 조서에 실려 있는 공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11년 2월 경북 안동에서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한 뒤 '해도교거사', '간운사' 등을 지어 독립운동 참여를 다짐하는 등, 1932년 귀국할 때까지 경학사, 부민단,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등을 이끌었던 남편 이상룡을 도와 독립운동을 지원함" 김우락 여사의 공적 평가에 4편의 가사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만 상하분별이 없어진 세태를 비판하기도 하고(〈자심운수가〉), 일본의 노예가 되는 학문을 배우지 말자는 국수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애자가〉).

대부분의 작가가 국권을 상실한 현실을 바라보며 펼친 논리는 '군자국인 대한이 삼강오륜이 끊어져 세상을 둘러봐도 나라를 구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금수와 같은 사람뿐이다'나 '예전의 법을 다 폐하고 개화법을 새로 배워 소중화 조선이 일본에 합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었다. 전자는 유교적 가치관이 상실됨으로써 매국노도 생기고 나라를 구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고 보는 논리이며, 후자는 일제의 강점과 동시에 개화문명의 전개 및 개화사상의 주장이 맞물려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성된 논리이다.

근대기는 일제강점에 맞서 유학에 의한 국권수호의 의지가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펼쳐졌던 시기였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유학계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현상은 학파의 계보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主理論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主理에 철저하려는 의식은 그만큼 철저히 선을 위하려는 의지와 상통하고, 선을 추구하려는 바로 이 점에 실천성, 즉 행위지향의 실제적 성격이 자리하게 된다. 그리하여 19세기 말 일제의 강점 야욕이 노골화되고 민족의 위기상황이 점차 분명하게 노정되자 주리파의 현실관 및 실천관은 국권수호의 자주의식 방향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30].

그런데 일제의 강점 야욕이 노골화됨과 동시에 일제에 의한 개화문명이 물밀 듯이 한반도에 들어왔고 개화사상도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유학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논리를 발견한 유학적 지식인은 20세기 들어 더욱 유학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키우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어 일제에 대한 저항에 민족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당시는 민족적 역량을 집결시키기 위해 일제에 저항하는 논리의 선명성을 부각해야 하는 절박성도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유학적 지식인은 일제에 대한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일제와 같이 들어온 개화문명과 개화사상을 강하게 비판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일

30) 고순희, 앞의 책, 2014a, 197-198면.

제에 대한 저항으로 개화문명을 비판하는 인식은 사실 신작로, 공장, 기차 등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뼈아픈 정서를 표현한 민요에서도 발견된다. 어쩌면 당시에는 대한인 전체가 일제에 대한 저항심이 사무쳐 일제와 개화문명·개화사상을 구분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창작된 1910년대 가사는 대부분 유학적 가치관의 회복을 주장함으로써 국망의 현실을 직면한 유학적 지식인이 지니고 있었던 전형적인 항일 저항논리와 현실인식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개화문명사상을 주장한 작가도 있었다. 〈경세가〉의 개화파 지식인은 나라가 망한 것은 유학적 사고만을 고집하는 수구파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성해방을 포함한 개화사상과 개화문명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위모사〉의 젊은 여성 작가는 남녀평등사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문명개화사상을 주장한 젊은 작가가 가사문학의 작가층으로 편입된 것은 가사문학 장르가 현실의 다양한 사고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가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이후 가사문학의 작품세계를 조망해볼 때 이 가능성은 실현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문학의 작품세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유교적 가치관의 회복을 주장하면서도 정감록이나 비결에서 말하고 있는 피난처로서의 '십승지'를 거론한 작품이 꽤 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시절가〉이다. 〈시절가〉는 민족종교, 정감록, 비결 등의 용어를 빌어 나라의 위기 국면에서 살아남을 방도나 십승지, 피신지, 풍수 등을 장황하게 나열하여 서술했다. 사실 작가는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서술하기는 했다. 따라서 작가는 대한인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아 독립을 보자'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이것들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당시 정감록이나 십승지 등에 경도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노정긔라〉에서도 작가 일행이 들어간 성전촌은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을 비롯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살았던 마을로, 예로부터 兵火가 들어오지 못

하는 곳이라고 하여 도참설에서 지목되는 마을이다. 전해지는 구결에 '五山五溪之中, 可活萬人之地.'라 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뒤에 '오산', 앞에 '오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비결을 신봉한 사람들이 찾아 들어온 곳이다. 도선국사도 이곳을 '摳星落地(북극성이 비추는 곳)'라 했던 곳이다. 그리고 〈은사가〉에서는 "십승지지 못밧거던 풍긔봉화 어이알며"라고 하여, 〈자심운수가〉에서는 "십승지 차ᄌᆞ가셔 ᄉᆡᆼ할곳 보고오나"라고 하여 십승지를 거론했다. 이와 같이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 중에는 나라가 없는 세상을 피해 들어가 살만한 은거지와 관련하여 십승지나 피신지를 거론하는 작품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감록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천도교(동학), 正易사상에 근거한 종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의 민족종교는 19세기 말부터 형성되어 20세기 초에 기반을 잡았다. 이러한 민족종교의 사상과 교리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화두는 '우리 민족'이었다. 이렇게 당시의 민족종교는 일제의 노골적인 강점 야욕을 맞닥뜨린 대한국민의 충격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발전한 것이었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三絶運數說에 의하면 경술국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이은 세 번째 나라의 위기이다. 당대의 대한인은 『정감록』을 신봉하든 신봉하지 않든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사 최대의 수난기를 맞이해 이것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이전 시기에 두 번이나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듯이 나라를 잃은 이 위기도 민족적 역량을 총동원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정감록』에서 말하고 있는 진인출현 신앙도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이러한 정감록적 사상은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고취시키고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고 저항할 강력한 정신적 원동력을 제공'했는데, 실제로 '민족해방운동을 체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수행해나갈 역량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던 당시 민중들에게 진인의 존재와 새로운 왕조의 건설이라는 기쁜 소식은 나라를 되찾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로 다가왔다'[31].

31) 고순희, 앞의 글, 2018, 375-376면.

이렇게 정감록 사상과 민족종교는 위기에 처한 민족과 민중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당시 대한인들 사이에서 풍미해 있었다. 작가들 중 상당수가 유학적 사고에 투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시 대한인의 대중적인 인식을 여유롭게 수용하는 자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는 당대 민족의 위기 현실에서 정감록 사상과 민족종교가 대한인 사이에 만연해 있었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울러 지닌다.

2) 가사문학사적 의의

가사문학은 역사사회에 대응하여 꾸준히 작품을 생산하여 왔다. 조선후기 〈갑민가〉, 〈합강정가〉, 〈향산별곡〉, 〈거창가〉, 〈민탄가〉 등의 현실비판가사는 삼정문란기와 진주민란을 배경으로 하여 민중의 처참한 생활상을 서술하고 지배층의 가렴주구를 비판했다. 이들 가사 중 〈거창가〉는 특정 향촌사회를 배경으로 창작되었지만 엄청난 이본을 지니며 각지로 유포되어 광범위하게 향유되기도 했다.

근대기에 들어서는 최제우의 용담유사 가사를 비롯한 동학가사가 새로운 세계관을 담으면서 일제의 침략 야욕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참여했던 박학래가 쓴 〈경난가〉(1897)는 2차 동학농민전쟁의 와중에 서울을 다녀온 후 경주로 이주하여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면서 동학농민전쟁의 상황, 동학농민군의 참상, 당시 민중의 참상 등을 내용 가운데 수용했다. 남해 창선목장의 민중지도자인 정익환이 쓴 〈심심가〉(1898)는 갑오개혁으로 전개된 도세저항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감관의 가렴주구를 고발하고, 민중에게 도세저항운동에 동참해주기를, 그리고 신관찰사에게 도세의 해결을 호소했다. 유홍석의 〈고병정가사〉(1896), 민용호의 〈회심가〉(1896), 전수용의 〈격가〉(1910년 전), 정용기의 창의가사 3편(1905, 1906, 1907), 이석용의 〈격중가〉(1907) 등의 의병가사는 일제 타도를 주장하며 의병전쟁에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리고 경술국치 직전에는 〈경세가〉나 〈고국가〉 등의

가사가 일제의 강점 현실을 통렬하게 문제 삼았다.

한편 근대기에는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매체에 게재된 개화기가사가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이들 가사는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항일 의지를 고취시키면서 유교적 질서의 회복이나 문명개화사상을 주장했다. 이들 가사는 4음보 연속의 정통 가사는 아니었고, 매체 환경에 맞도록 한 연의 길이를 짧게 한 연작 형태의 변형가사가 대부분이었다.

매체게재 개화기가사는 가사문학사에서 전례 없는 역사적 기능을 수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매체게재 개화기가사가 지닌 형식에 있었다. 매체게재 개화기가사가 가사의 정통형식을 변형하여 마지막 기능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가사는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는 시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변형된 형식의 가사는 '신문학의 갈래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밀려났으며, 1900년대 가사의 놀라운 성과도 잊혀졌다'거나 '가사는 계속 이어지되 규방가사를 기반으로 해서 필사본으로 창작되고 유통되었을 따름이다'라는 시각을 낳았으며[32], 급기야 '상당수의 가사 작품이 창작되었지만,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가사의 전통적·본질적 성격이 많이 쇠퇴하였기 때문에' 갑오경장 이후 현대까지를 통틀어 '쇠퇴기의 가사문학'으로 설정하는 데에 이르렀다[33]. 형식을 변형해서라도 가사가 당시의 역사사회 현실에 활발하게 대응했지만, 결국 형식의 와해와 변형을 끝으로 가사문학이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는 시각을 형성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필사본 형태의 가사들이 언뜻 보면 내용의 천편일률성을 띠는 것이 많아 이러한 시각은 일견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가사 필사본을 면밀하게 읽으면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해 새로운 경험을 담아 의미 있는 작품세계를 지닌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쇠퇴기'로 보는 일제강점기 가사문학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술국치 후 1910년대에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하여 창작된 가사는 26편이나 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불과 10년

3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 278면.
33)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329면.

동안에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해 창작한 가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 시기에 가사문학이 여전히 살아 있는 장르로 기능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적어도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가사문학이 쇠퇴기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오히려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가사문학의 창작이 보다 활성화되어 의미 있는 작품을 보다 많이 생산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민족사의 최대 비극인 경술국치를 당하자 가사문학 작가들은 즉각적으로 가사문학의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하는 전통을 극대화하여 발현시킴으로써 26편이나 되는 가사 작품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에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창작된 가사문학은 일제강점기에 상당한 향유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은사가〉(〈경술국치가〉), 〈시절가〉, 〈인산가〉, 〈한양가〉가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특히 〈시절가〉와 〈한양가〉는 확인된 것만 해도 20편이 넘는 이본을 남기고 있어 가사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활발한 향유가 이루어진 작품에 속한다. 이와 같이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문학은 민족의 최대 위기상황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당시 대한인의 정서를 대변하고 대한인을 결집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기능하면서, 가사문학 창작의 확대재생산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의 작가를 나이로 살펴보면 추정치까지 합하면 중·노년층이 총 14명이며, 20-30대 젊은 층은 7명 정도로 정리된다. 가사문학사를 통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작가는 중년층 이상이 가장 많다.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의 작가가 중·노년층이 많은 것은 가사문학사의 일반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작가가 7명이나 되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사실은 당시 나이를 초월하여 대한인 모두가 경술국치의 충격에 휩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가사문학사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사문학의 창작과 향유 전통이 이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191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한 가사문학의 창작은 계속 이어졌다. 일제의 탄압정치는 날로 가혹해져 식민지 국민

인 대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자 이런 현실을 직면한 가사문학의 작가들은 그에 대응한 가사 작품을 계속 창작했다. 모두 조사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1920년대에는 한 독립운동가의 옥중가인 〈옥중가〉를 비롯하여 〈망월가〉·〈이걍슈포한가라〉·〈자탄가〉·〈몽유가〉·〈산촌향가〉·〈일월산가〉·〈세덕가〉·〈인곡가〉·〈장탄곡〉 등이 창작되었다. 1930년대에는 〈명륜가〉·〈생조감구가〉·〈현생비극가〉·〈망월사친가〉·〈을해춘가〉·〈조부인귀정회고가〉 등이 창작되는 가운데, 유학이나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사향곡〉·〈망향가〉·〈사향가〉·〈원별회곡이라〉·〈부녀자탄가〉 등이 창작되었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0년대에는 태평양전쟁과 징병으로 착취당하는 대한인의 현실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만주가〉가 창작되었으며,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로 시행된 징병의 현실과 관련하여 〈망부가〉·〈사제곡〉·〈원망가〉·〈자탄가〉·〈춘풍감회록〉·〈신세자탄가〉 등이 창작되었다.

이와 같이 1910년대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가사문학은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하여 창작하는 가사문학의 전통을 극대화하여 발현함으로써 일제강점기가 계속될 때까지 그 전통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했다는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가사 창작의 쇠퇴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로 기능한다는 가사문학사적 의의도 지닌다.

그런데 1910년대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가사문학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지역에서 주로 창작됨으로써 가사문학의 창작과 향유에 있어서 지역적 한정성을 더욱 고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가사문학사적 의의도 지닌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그 전개양상의 의미와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했다.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의 작가는 남성이 많지만 여성도 7명이나 된다[34]. 그리하여 이들 가사는 성별에 따라 글쓰기 방식

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남성의 가사는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되 나라의 객관적인 현실 자체를 서술의 중심에 놓아 개인의 삶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여성의 가사는 개인의 삶을 서술의 중심에 놓고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나라의 현실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가사는 관습적인 서술구조가 달리 나타나고 사용하는 문체가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주제를 집약화하기 위해, 또 지면의 한계상 남성과 여성의 가사 글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루지를 못했다. 추후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34)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가사의 작가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은거'가 남 3명과 여성 1명, '만주망명'은 남 1명과 여 7명, '현실개탄과 경계'가 남 6명과 여 1명, '역사서술'이 남 3명 등으로 총 남 13명과 여 9명으로 나타난다.

▮ 참고문헌

「庚戌國恥歌」,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6권, 동서문화원, 1987, 199-235면.
「개세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2&VerseID=V00000446(2019.06.27 검색).
「경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규방가사 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623-631면.
「고국가라」,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1&VerseID=V00006562(2019.06.27 검색).
「노경긔라」,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35권, 아세아문화사, 1998, 415-433면.
「대한복수가」, 홍재휴 교주, 『(國譯)澗愚逸稿』 권지삼, 潁溪澗愚逸稿刊行所, 1986, 1-13면.
『문소김씨세덕가』(비매품), 천전김씨 문중 소장.
「신의관창의가」, 김용직, 『한국현대시연구』, 일지사, 1974, 405-432면.
「애자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2&VerseID=V00001509(2019.06.27 검색).
「은사가」,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44권, 아세아문화사, 1998, 87-100면.
「은사가」, 조동일, 『국문학연구자료 Ⅰ』, 박이정, 1999, 532-542면.
「隱士歌」, KRPia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832&tabNodeId=NODE06097799&nodeId=NODE06098926#none(2019.06.27 검색).
「은사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1&VerseID=V00003743(2019.06.27 검색).
「은삭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2&VerseID=V00003149(2019.06.27 검색).
「은사가(隱士歌)」, 이대준, 『낭송가사집』, 세종출판사, 1998, 39-49면.
「은사가」, 이정옥, 『영남내방가사』 제4권, 국학자료원, 2003, 16-32면.
「은ᄉᆞ가」,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2011, http://waks.aks.ac.kr/dir/achieve.aspx?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2019.06.27 검색).
「因山歌」, 홍재휴, 「소암가사연구」, 『연구논문집』 제36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88, 9-38면.
「인산가(因山歌)」, 홍경표 외, 「영사류가사 연구」, 『여성문제연구』 제14집,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 1985, 47-49면.
「인산가」,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영주·봉화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397-398면.
「인ᄉᆞ별곡」, 이정옥, 『영남내방가사 제1권』, 국학자료원, 2003, 212-217면.
「인ᄉᆞ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1&VerseID=V00005067(2019.06.27 검색).
「입산가」,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 자료」, 『한국문학연구원논총』 제1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423-424면.
「자심운수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

View.aspx?TopID=A&SubID=02&VerseID=V00005009(2019.06.27 검색).
「히도교거ᄉᆞ・정화가・정화답가」, 성호경・서해란, 「만주 망명 여성가사 〈히도교거ᄉᆞ〉・〈정화가〉와 〈정화답가〉」, 『한국시가연구』 제46집, 한국시가학회, 2019, 165-205면.
「行狀」, 한국가사문학관 남곡유고(南谷遺稿), http://www.gasa.go.kr/WService/AncientDoc/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B&SubID=02&BookID=A00000070(2019.06.27 검색).

고순희, 『만주망명가사연구』, 박문사, 2014a.
_____, 『만주망명가사 자료』, 박문사, 2014b.
_____, 「일제강점기 〈시절가〉 연구」, 『영남학』 제66집,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8, 351-383면.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김용직, 「항일저항시 〈신의관창의가〉」, 『한국현대시연구』, 일지사, 1974, 390-432면.
김윤희, 「안동의 여성 독립운동가 김락의 가사 〈유산일록〉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과 예술』 제22집, 숭실대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17, 93-117면.
김인구, 「세덕가계 가사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제84집, 국어국문학회, 1980, 256-265면.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성호경・서해란, 「만주 망명 여성가사 〈히도교거ᄉᆞ〉・〈정화가〉와 〈정화답가〉」, 『한국시가연구』 제46집, 한국시가학회, 2019, 165-205면.
장인진, 「운포 이중린의 척사정신과 의병항쟁」, 『영남학』 제9권,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245-293면.
정영문, 「이본 대조를 통한 〈한양가〉의 텍스트 확정 문제—박순호본 〈한양오백년가〉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과 예술』 제10집, 숭실대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12, 61-97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
최강현, 「왕조 한양가의 이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32집, 국어국문학회, 1966, 81-90면.
홍경표 외, 「영사류가사 연구」, 『여성문제연구』 제14집,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 1985, 9-153면.
홍재휴, 「大韓復讐歌攷」, 『國語教育論志』 제2집, 大邱教育大學 國語科, 1974, 1-32면.
_____, 「소암가사연구」, 『연구논문집』 제36집, 대구효성가톨릭대, 1988, 9-38면.

「'천석지기' 독립운동 가문, 후손은 임대주택으로」, 오마이뉴스, 2013.8.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6345&CMPT_CD=SEARCH(2019.06.27 검색).

【Abstract】

Developmental Aspects, Meaning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1910's Gasa Which was created by the Shock of Hanil Unification

Ko, Soo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1910's Gasa which was created by the shock of gyeongsulgugchiui, and to identify the meaning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Gasa. These Gasa were develop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type of 'living in hiding place', 'exiling Manchuria', 'reality lament and lesson', and 'history narration'.

These Gasa has meanings in the point that the Gasa functioned as a genre to actively respond to the history and social realities of that days, that these functions as a documentary reflecting the perceptions and lives of the contemporaries, that these show the typical anti-Japanese logic by resisting the Japanese imperialists, that these show the possibility as the poetry genre of Gasa by revealing the flowering civilization thought of young people, that these reflect the social phenomenon prevalent in the contemporary people, and that these show the local identity of Andong-based Gyeongbuk region.

These Gasa has the significance in the point that these have maximized the tradition of Gasa to create in response to the historical and social reality, and that these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linking this tradition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eywords: Gasa, Hanil Unification, In the 1910s, Andong-based Gyeongbuk, Historical · Social Reality.

접수일: 2019.06.27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09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